

LG디스플레이, 구미 6세대 라인 증설

2009년 2/4분기 양산 목표 1조원 투자 ... LCD 패널 수요증가 대응

LG디스플레이가 구미 소재 6세대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5월16일 “2009년 2/4분기 양산을 목표로 1조원을 투자해 구미 6세대 공장을 증설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됐다”며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사업장에서 TV와 모니터용 1-6세대 LCD 패널을 생산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는 최근 LCD 패널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1500×1850mm 크기 6세대 유리기관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LG디스플레이는 2008년 공장 증설에 들어갈 예정이며, 2009년 상반기 공장이 완공되면 6세대 라인 생산량이 월 17만장에서 23만장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LG디스플레이는 최근 구미사업장의 모듈 생산라인을 중국으로 이전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LG 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중국과 폴란드에 LCD 모듈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 와전된 것 같다”며 “구미사업장의 생산라인을 이전하지도 않았고 이전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16>